

“농업인 실익 증진·권익 향상 노력”

■ 신안 비금농업협동조합 최 승 영 조합장

지역과 농업을 동반 성장 시켜주는 ‘지역의 버팀목’으로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조합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 비금농업협동조합 최승영 조합장(63)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최 조합장은 남보다 한발 먼저 뛰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앞세워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으로 최선의 결과물을 속속 만들어내고 있다.

직원과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은 기본이며 화합과 협력으로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비금농협 사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소 고객과 조합원에 대한 친절봉사를 강조한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애로 사항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농협중앙회 중점사업인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조합원 소득 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중앙회 자금 4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소득지원컨설팅사업 중앙회 지원 등 성과 지역특산 천일염·섬초 판촉 등 성장 주도

특히 지난 2015년 취임 이후 80세 이상 원로 조합원들 240여명의 생일을 가가호호 방문해 손수 챙기는 것도 눈에 띈다. 생일을 맞은 원로 조합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미역과 쇠고기 등의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까지 꼼꼼히 보살피다보니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다.

최 조합장은 “자식들은 고향을 떠나고 어르신들만 외롭게 생활하고 있어 마음에 걸렸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그동안 비금농협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해 온 원로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

합원들이 생산한 천일염과 섬초에 대해 값 받고 팔겠다고 전국 각지를 돌며 판촉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그 결과 천일염 판매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섬초도 경쟁력을 확보해 브랜드 가치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에 한 몫하고 있다.

최 조합장은 비금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천일염을 ‘본 솔트’ 라 이름 짓고 소포장 가공공급을 개발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 납품,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580톤급 ‘섬드리’ 고숙페리호를 건조해 가산 선착장에서 안좌도를 경유해 목포까지 오가는 배편을 제공, 지역민들과 조합원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최 조합장은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 농협의 가치와 역할 증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고 있다”며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장흥 우드랜드 편백수 족욕탕 인기

장흥 편백수 우드랜드에 편백 족욕탕과 건강 족욕로가 새로 설치돼 방문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족욕탕 위로는 편백수 발원지를 상징하는 편백 씨앗 모양의 조형물도 설치돼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서부경찰,치안종합 성과 분석 보고회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경찰서 교통과·경비과·정보보안과 과장·계장·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성과 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 곤충산업 발전 농·학·관 손잡다

도농기원·고구려대 등 협약...기술지원 등 협력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곤충산업연구소에서 고구려대학교 곤충산업과와 전남곤충산업연합회 소속 22개 지회의 곤충사육 선도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장소 제공, 기자재 이용, 분석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곤충사육·가공·유통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

한 실험, 실습장 공유 ▲현장 중심 실습 및 취업진로 협력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백강잠(누에), 식용누에, 갈색거저리 애벌레,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7종이 식용곤충으로 등록돼 있다.

전국 곤충사육농가도 지난해 기준 2,136농가, 종사자는 3,194명으로 전년에 비해 70% 정도 늘었다.

그러나 전남은 산업 규모가 경기, 경북, 경남, 충북에 이어 5위권에 머물러 있



고, 경기도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육량과 판매량도 뒤지는 등 마을단위 공동사육과 전문적인 수집, 가공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가 필요한 형편이다.

전남농기원 곤충산업연구소 구희연 연구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식용곤충 생산과 가공, 전문인력 육성 등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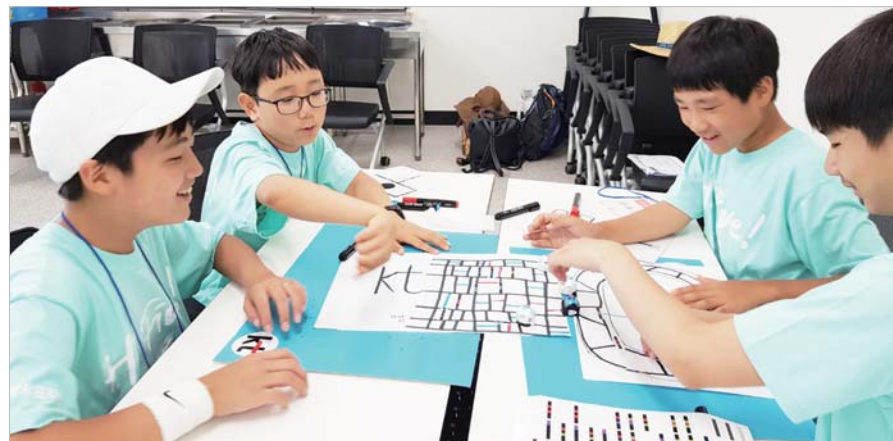
KT 등 주관, 신안 임자도서 ICT 진로체험

전남도는 31일 “KT와 전남스마트센터 주관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체험형 대안 프로그램인 ICT 진로체험 캠프를 지난 27일까지 3일간 신안 임자도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ICT진로체험 캠프는 광주·전남스마트센터와 KT호남권사회공헌팀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들이 학업 및 대인관계 등 일상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이 아닌 대안활동을 통해 해소해 과의존 예방을 예방하고, 자신의 진로탐색을 모색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문형석 전남도 정보화담당관은 “앞으로도 전남스마트센터와 KT호남권 사회공헌팀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 산간지역



학생 코딩교육과 ICT 진로체험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사항은

누리집(www.iapc.or.kr)이나 1599-0075 또는 전남스마트센터(061-642-1971)로 문의하면 된다.

/정근산 기자



구례 드림스타트 공감소통 여행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공감소통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례=김진석 기자



광주북구여성새일센터, 초등생 진로학습 컨설팅

광주북구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이춘희)는 신한금융그룹 후원으로 ‘신한희망재기지원프로그램-네 꿈의 색깔은?’ 초등생 진로학습컨설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전남소방본부 구조대원들, 물에 빠진 학생 구조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던 119구조대원들이 인근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10대 청소년의 생명을 구했다.

지난달 3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2시 51분께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학생 A군(18)이 2m 깊이의 물에 빠져 구조됐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때마침 인근에서 휴가를 보내던 소방교 이항현(특수구조대), 소방사 이준범(담양119구조대), 소방사 안태현(완도119구조대) 등 전남소방 119구조대원 3명이 이를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해 의식이 돌아왔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초기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여수지역 고등학교생으로 친구 8명이 함께 옥룡 계곡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박동하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즐거은 휴가를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여수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은 31일 장성군 일원에서 관내 학교급식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학교급식관계자와 청백리의 맛집은 손’이라는 주제로 장성 청렴유적지와 축령산 일대를 탐방했다.

특히 조선시대 신정백리체험에서는 다도와 떡차 만들기를 했고 이어 축령산 편

백수의 피톤치드와 함께하는 산소 힐링 시간은 바쁜 일상의 조리종사원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시간이 됐다.

여수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관계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복한 삶, 즐거운 배움터로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김대희 여수 빠리안경 대표, 돋보기 후원

김대희 빠리안경콘택트 대표는 최근 여수시 문수동 경로당에 100만원 상당의 어른신 돋보기 100개를 후원했다.

김대희 대표와 문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은 문수동이 추진하는 브랜드사업 ‘달달한 나눔 행복한 문수골 이야기’를 통해 어른신들에게 맞춤형 돋보기를 전달했다.

‘달달한 나눔 행복한 문수골 이야

기’는 민간 후원자를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월 새로운 주제가 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취약계층 방충망 설치를 실시했다.

이동원 문수동장은 “여러 분야의 민간 후원자들을 적극 발굴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